

성령열매반 교재

데이빗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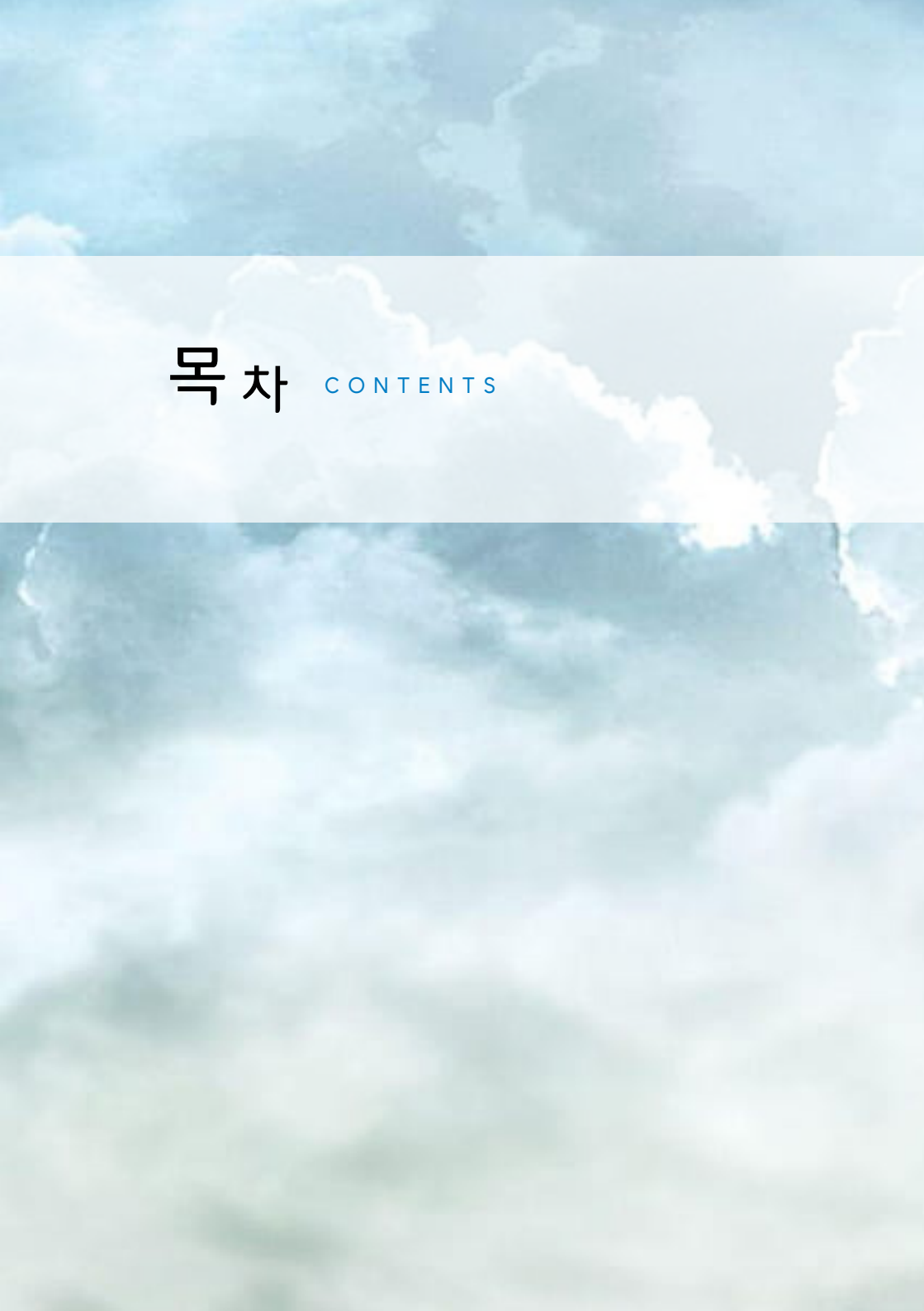
성령의 열매는 성화의 기본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맺어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매일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홀리타임즈



목 차

CONTENTS



제 1 장 성령의 열매 기본 이해 _ 5

제 2 장 사랑, 모든 열매의 근원 _ 39

제 3 장 희락과 화평 _ 61

제 4 장 오래참음, 자비, 양선 _ 89

제 5 장 충성, 온유, 절제 _ 111

제 6 장 성령의 열매 종합 _ 134





1 장

/

성령의 열매 기본 이해

제 1 장 성령의 열매 기본 이해

훈련 목적

- *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한다
- *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원리를 파악한다
- *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훈련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갈라디아서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조 구절: 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1. 성령의 열매의 기본 이해

가. 핵심 용어의 이해

1) "열매"와 "일"의 차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육신의 일(ργα, 에르가)"과 "성령의 열매(καρπ, 카르포스)"를 대조시킵니다.

아) 육신의 일(works, ργα)

- '에르가(ἔργα)'는 '에르곤(ἔργον)'의 복수형으로, 원래 '노동', '수고',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70인역(구약의 헬라어 번역)에서 히브리어 '마아세(מַעֲשֵׂה)'를 번역할 때 사용되었으며,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 육신의 일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15가지가 서로 분리되고 조화롭지 못한 파편화된 행동들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인위적 노력이며, 내면의 변화 없이 겉으로만 나타나는 외적 행동입니다.
- 바울은 "육신의 행위는 분명하니"(갈 5:19)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파네라(φανερὰ, 분명한)'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일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21)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8:6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선언하여, 육신의 일이 결국 죽음으로 인도함을 분명히 합니다.

b) 성령의 열매(fruit, καρπός)

- ‘카르포스(καρπός)’는 고전 헬라어에서부터 농업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식물이나 나무가 자연스럽게 맺는 결실을 의미합니다.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페리(פֵּרִי)’를 번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사용되어 9가지가 하나의 통합된 전체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을 때 저절로 나타나는 자연적 결과이며, 변화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내적 성품의 외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아나니”(마 7:17)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마 7:18)라는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단수형 "열매"의 신학적 의미

a) 하나님의 성품의 통일성

- 성령의 열매가 단수형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반영합니다. 요한일서 4:8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임을 보여주는데, 이 사랑 안에 모든 다른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사랑만 있고 절제가 없거나, 희락만 있고 오래참음이 없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b)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성

-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9가지 열매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되 공의로우셨고, 온유하시되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으며, 자비로우시되 거룩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열매만 선택할 수 없으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 가십니다.
- 오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렌지를 쪼개면 여러 조각이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의 오렌지입니다. 각 조각은 같은 맛과 향을 가

지고 있습니다. 한 조각만 오렌지 맛이 나고 다른 조각은 사과 맛이 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9가지 특성은 하나의 열매의 다양한 표현이며, 이것들은 함께 자라고 함께 나타납니다.

나. 구약과 신약의 연결

1) 구약의 열매 개념

a) 창조 명령에서의 열매

- 창세기 1:11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듯이, 이것은 영적으로도 적용되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에서 '생육하고'는 히브리어로 '파라(פָּרָה)'인데, 이것은 '열매 맺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열매 맺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b) 이스라엘과 열매

-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비유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내 사랑 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사 5:1-2).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을 돌보셨지만, 그들은 기대와 정반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 하나님이 기대하신 "정의($\nu\pi\sigma\tau\eta\varsigma$, 미쉬파트)"와 "공의($\sigma\tau\eta\tau\eta$, 체다카)" 대신 나타난 것은 "포악($\mu\iota\sigma\theta\eta\varsigma$, 미스파흐)"과 "부르짖음($\sigma\tau\eta\tau\eta$, 체아카)"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 유희를 통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얼마나 정반대였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2) 신약의 성취

a)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 요한복음 15:1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참($\alpha\lambda\eta\theta\iota\nu\acute{o}\varsigma$, 알레티노스)'은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포도나무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완벽하게 맺으신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 예수님은 단지 열매를 맺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수액을 공급하듯,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b) 교회: 새로운 포도원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 21:43)는 예수님의 선언은 구약 이스라엘에서 신약 교회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베드로전서 2:9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한 것처럼,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기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2.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비교 (갈라디아서 5:19-23)

가. 육신의 일 (15가지) - 상세 분석

1) 성적 타락 (3가지)

a) 음행(πορνεία, 포르네이아)

- '포르네이아'는 '포르네(πόρνη, 매춘부)'에서 파생된 단어로, 모든 형태의 불법적 성관계를 포괄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자나(זָנָה)'와 연결되며, 이것은 육체적 간음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 현대적 적용으로는 혼전 성관계, 불륜, 동거, 음란물 중독, 사이버 음란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 6:18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경고한 것처럼, 음행은 특별히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 그리스도는 이와 정반대로 순결을 회복시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주십니다.

b) 더러운 것(ἀκαθαρσία, 아카타르시아)

- '아카타르시아'는 '아(α, 부정)'와 '카타로스(καθαρός, 깨끗한)'의 합성어로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레위기적 개념으로, 단순한 의식적 부정함을 넘어 도덕적, 영적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 현대적으로는 음란한 생각, 더러운 농담, 부적절한 대화, 정신적 간음 등이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5:28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더러움은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c) 호색(ἀσέλγεια, 아셀게이아)

- '아셀게이아'는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방종을 의미하며, 수치심조차 없는 공개적 방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퇴폐적 향락 문화를 반영하는 단어로, 당시 디오니소스 축제나 바카날리아 같은 방탕한 축제들을 연상시킵니다.

2) 종교적 타락 (2가지)

a) 우상숭배(εἰδωλολατρία, 에이돌로라트리아)

- '에이돌로라트리아'는 '에이돌론(εἶδωλον, 형상)'과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 예배)'의 합

성어입니다. 골로새서 3:5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한 바울의 경고는 현대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 현대의 우상들은 물질 우상(돈, 재산, 투자), 성공 우상(출세, 명예, 인정), 관계 우상(연애, 자녀, 가족), 자아 우상(자기 의, 자기 영광) 등입니다. 마태복음 6:24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상숭배의 본질이 충성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b) 주술(φαρμακεία, 파르마케이아)

- '파르마케이아'는 원래 '약물 사용'을 의미했으나, 당시 주술 행위에 약물이 사용되면서 '마술, 주술'의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현대적 형태로는 점성술, 타로카드, 사주팔자, 무속신앙, 뉴에이지, 초월명상 등이 있습니다.

3) 관계의 파괴 (8가지)

이 여덟 가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로, 초대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a) 원수 맺는 것(ἐχθρα, 에크트라)

- '에크트라'는 깊은 적대감과 증오를 의미함

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모든 관계 파괴의 시작점이 되는 이 죄는 용서하지 않고 한을 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현대적 적용으로는 오랜 원한 관계, 화해를 거부하는 태도, 복수심을 키우는 것, 상대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15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경고하여, 마음이 곧 마음의 살인임을 보여줍니다.

b) 분쟁(ἔρις, 에리스)

- '에리스'는 다툼과 논쟁을 의미합니다. 적대감이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말다툼과 싸움으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평화보다 싸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현대적으로는 끊임없는 말다툼, 소송 남발, 논쟁을 즐기는 태도, SNS에서의 댓글 전쟁,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잦은 충돌 등이 해당됩니다. 잠언 17:14는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권면합니다.

c) 시기(ζήλος, 젤로스)

- '젤로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 질투하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 축복을 건디지 못하고 부러워하며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 현대적 적용으로는 타인의 성공을 못 건디는 것,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SNS를 보며 우울해하는 것, 끊임없이 비교하며 좌절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잠언 14:30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하여 시기가 자신을 파괴하는 독임을 보여줍니다.

d) 분냄(θυμοί, 뒤모이)

- '뒤모이'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반복적으로 폭발하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폭발로, 순간적이면서도 파괴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 현대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 감정 폭발, 욕설과 폭언,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행위, 물지마 화풀이 등이 해당됩니다. 잠언 16:32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라고 하여 분노를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 당 짓는 것(ἐπιθεῖαι, 에리테이아이)

- '에리테이아이'는 이기적 야심으로 파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파를 조성하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 현대적 적용으로는 교회 내 파벌 조성, 편 가르기, 자기 세력 만들기, 정치질, 뒷담화로 사람을 모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16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경고합니다.

f) 분열($\delta\iota\chi\omicron\sigma\tau\alpha\sigma\iota\alpha\iota$, 디코스타시아이)

- '디코스타시아이'는 문자적으로 '둘로 나누어 서기'를 의미합니다.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를 둘로 나누고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 짓는 것이 더 발전하여 실제 분리로 이어진 상태입니다.
- 현대적으로는 교회 분열 주도, 가정 파괴, 이간질, 불화 조장, 조직 내 분란 일으키기 등이 해당됩니다. 에베소서 4:3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g) 이단($\alpha\iota\rho\acute{\epsilon}\sigma\epsilon\iota\varsigma$, 하이레세이스)

- '하이레세이스'는 원래 '선택'을 의미했으나,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과 그로 인한 분파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 현대적 적용으로는 잘못된 교리 주장, 성경 왜곡, 신형 종교 추종, 극단적 신비주의, 번영 복음,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 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15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합니다.

h) 투기(φθόνοι, 프토노이)

- '프토노이'는 시기보다 더 악한 질투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적극적인 악의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 현대적으로는 음해와 모략, 거짓 소문 퍼뜨리기, 경쟁자 제거, 남을 끌어내려 자신이 올라가려는 시도 등이 해당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투기의 극단적 예입니다. 갈라디아서 5:26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권면합니다.
- 이 8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적대감(원수 맺는 것)에서 시작하여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투기로 발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10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한 바울의 권면은 이러한 분열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4) 절제의 상실 (2가지)

a) 술 취함(μέθαι, 메타이)

- '메타이'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반복적인 술 취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18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여,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킵니다. 당시 디오니소스 축제 등 이방 종교 의식에서 술 취함은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수단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b) 방탕(κῶμοι, 코모이)

- '코모이'는 원래 디오니소스 신을 기리는 '축제 행렬'을 의미했으나, 절제 없는 파티와 난잡한 잔치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누가 복음 21:34에서 "너희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고"라고 경고한 것처럼, 방탕은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나. 성령의 열매 (9가지) - 그리스도의 성품

1) 하나님을 향한 열매 (상향적)

a) 사랑(ἀγάπη, 아가페)

- '아가페'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으나, 70인역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헤세드(חֶסֶד, 언약적 신실한 사랑)'와 연결되며, 감정이 아닌 의지적 선택을 강조합니다.
-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니이다"(눅 23:34)라는 기도는 원수를 위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세 번 사랑을 확인하며 회복시키신 것(요 21:15-17)은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b) 희락(χαρά, 카라)

- '카라'는 '카리스(χάρις, 은혜)'와 같은 어근으로, 은혜를 경험할 때 나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일시적인 행복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영구적인 기쁨입니다.
- 예수님은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눅 10:21) 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

서 기쁨을 누리셨고, 히브리서 12:2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라고 하여,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셨음을 보여줍니다.

c) 화평(εἰρήνη, ऐ이레네)

- '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שלום)'의 번역으로, 단순한 평화가 아닌 완전함, 온전함, 번영을 포함하는 총체적 안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수직적), 자기 자신과의 관계(내적), 타인과의 관계(수평적)에서의 평안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배에서 주무실 수 있는 완전한 평안을 보이셨고(막 4:38),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고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2) 타인을 향한 열매 (외향적)

a) 오래참음(μακροθυμία, 마크로뒤미아)

- '마크로뒤미아'는 '마크로스(μακρός, 긴)'와 '뒤모스(θυμός, 성질)'의 합성어로 "긴 성질", 즉 화를 늦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에렉 아파임(עֲרֵךְ אַפַּיִם,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연결되며, 출애굽기 34:6에

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시됩니다.

-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에도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배반할 가롯 유다에게도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하는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b) 자비(χρηστότης, 크레스토테스)

- '크레스토테스'는 '크라오마이(χράομαι, 유용하다)'에서 파생되어 '친절하고 유용한 선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눅 7:13),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고치셨으며(막 1:41), 목자 없는 양 같은 5000명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막 6:34).

c) 양선(ἀγαθωσύνη, 아가토쉬네)

- '아가토쉬네'는 소극적 친절을 넘어선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선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하셨고(막 3:4), 성전을 정화시키는 의로운 분노를 보이셨으며(요 2:14-16),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며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눅 15:1-2).

3) 자신을 향한 열매 (내향적)

a) 충성(πίστις, 피스티스)

- '피스티스'는 '믿음'과 '신실함' 모두를 의미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아버지께 끝까지 충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는 말씀처럼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b) 온유(πραῦτης, 프라우테스)

- '프라우테스'는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절제하여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마 11:29)라고 하셨고, 예루살렘 입성시 전쟁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것(마 21:5)은 온유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c) 절제(ἐγκράτεια, 엔크라테이아)

- '엔크라테이아'는 '내적 지배력',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마 4:4)라고 하시며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는 증언은 완

벽한 절제의 삶을 사셨음을 보여줍니다.

3. 열매 맺는 원리 (요한복음 15:1-8)

가. 연합의 원리

1)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 15:5). 이 비유는 구약의 포도원 이미지를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이제 열매 맺기의 핵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보여줍니다.

a) 생명적 연합

-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합니다. 떨어지면 즉시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 연결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유기적 연합입니다.
- 골로새서 2:6-7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하여,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삶을 강조합니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는 바울의 고백처럼 완

전한 일체감을 만듭니다.

b) 완전한 의존

-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는 선언은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 의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겸손을 요구하는 동시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2) "거하다"의 의미

"거하다"(μένω, 메노)는 요한복음 15장에 11번 반복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은 열매 맺기의 비결입니다.

a) 지속적 교제

'메노'는 일시적 방문이 아니라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에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는 이 교제를 유지하는 호흡과 같고, 말씀 묵상은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며, 순종은 교제의 증거입니다.

b) 친밀한 관계

거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입니

다.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요 15:15)라는 놀라운 신분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 가지치기의 원리

1) 가지치기의 목적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 15:2)

a) 더 많은 열매

- 가지치기는 현재의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더 열매를... 열매를 많이"(2, 5, 8절)라는 점진적 증가는 하나님의 기대가 계속 높아짐을 보여줍니다.

b) 건강한 성장

- 병든 가지, 죽은 가지를 제거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때로는 열매를 맺는 가지도 더 좋은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

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약속의 실현입니다.

2) 우리 삶의 가지치기

a) 시련과 훈련

- 하나님은 때로 시련을 통해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히 12:6). 이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히 12:10)는 목적이 있습니다.

b) 말씀을 통한 정결

-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요 15:3).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4:12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고 하여, 말씀이 우리 내면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영적 수술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다. 영광의 원리

1) 열매 맺기의 목적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요 15:8)

a) 하나님의 영광

- 열매 맺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취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b) 제자의 증거

-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 열매는 진정한 제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는 말씀처럼, 열매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4. 실천적 적용 및 자가 진단

가. 일상에서 열매 맺기

1) 매일의 영적 훈련

a) 아침 - 연결하기

-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연결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는 것처럼 의도적인 연합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첫 생각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 오늘도 당신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님, 오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 시편 5: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는 말씀처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b) 낮 - 의식하기

-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릅니다. 이것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6)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매 시간마다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묻고, 중요한 결정이나 반응 전에 잠시 기도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질문합니다.

c) 저녁 - 점검하기

- 하루를 돌아보며 나타난 열매를 점검합니다. 10-15분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여 하루

동안 나타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타난 성령의 열매에 감사하고, 육신의 일이 나타난 부분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내일 더 나은 열매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웁니다.

2) STOP 원칙 적용

이것은 순간적인 반응을 성령의 열매로 바꾸는 실천적 도구입니다.

a) Stop(멈추기)

-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춥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세 번 하고 10까지 세고, 비판하고 싶을 때는 말하기 전 5초간 침묵하며, 충동적 결정 앞에서는 24시간 기다리기 원칙을 적용합니다.

b) Think(생각하기)

- "이것이 육신의 반응인가, 성령의 반응인가?" 분별합니다. 이 반응이 사랑에서 나오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상대방을 세워주는지 무너뜨리는지 점검합니다.

c) Obey(순종하기)

-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했으면 즉시 순종합니다.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면 즉시 용서

선언하고, 사과하라는 감동이 오면 지체하지 않고 사과하며, 돕고 싶은 마음이 들면 즉시 행동합니다.

d) Proceed(진행하기)

-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실천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유지합니다.

나. 열매 일지 작성법

1) 기록 내용

a) 상황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단히 기록합니다. 시간, 장소, 관련된 사람, 발생한 일을 객관적으로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동료 A가 내 실수를 상사 앞에서 지적했다."

b) 반응

-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감정, 생각, 말, 행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났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참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다.”

c) 분석

- 육신의 일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분석합니다. “처음엔 분냄(육신의 일)이 올라왔으나, 절제(성령의 열매)로 반응했다. 그러나 마음에는 여전히 원망이 남아있다.”

d) 개선점

- 다음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계획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즉시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셔서 제가 개선할 수 있겠네요’라고 진심으로 반응하기.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기.”

2) 주간 점검

- 일주일에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가장 부족한 열매를 다음 주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파악하고, 육신의 일이 자주 나타나는 상황과 패턴을 분석하여 다음 주 집중 목표를 정합니다.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가 평가표

각 항목을 1-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1=매우 부족, 10=매우 풍성)

1) 사랑 평가

-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 10)
-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 10)
- 대가 없이 베풀 수 있는가? (/ 10)

2) 희락 평가

-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 10)
- 감사가 일상이 되었는가? (/ 10)
-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하는가? (/ 10)

3) 화평 평가

-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 10)
-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만드는가? (/ 10)
- 염려와 불안이 적은가? (/ 10)

4) 오래참음 평가

-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 10)
-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참아주는가? (/ 10)
- 응답이 더뎠어도 기다릴 수 있는가? (/ 10)

5) 자비 평가

- 친절하게 대하는가? (/ 10)
-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가? (/ 10)
-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 10)

6) 양선 평가

-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가? (/ 10)
-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 10)
- 필요를 보면 돕는가? (/ 10)

7) 충성 평가

- 맡은 일에 신실한가? (/ 10)
- 약속을 지키는가? (/ 10)
- 믿음직한 사람인가? (/ 10)

8) 온유 평가

- 부드럽고 겸손한가? (/ 10)
-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 10)
- 섬기는 자세를 가졌는가? (/ 10)

9) 절제 평가

-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 10)
-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가? (/ 10)
-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가? (/ 10)

라. 평가 결과 분석 및 처방

1) 전체 평가 (총 270점 만점 기준)

a) 27-80점: 전반적 위급 상태

- 성령의 열매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합니

다. 근본적인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b) 81-160점: 전반적 개선 필요

- 여러 영역에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훈련 계획을 세우십시오.

c) 161-240점: 전반적 양호 상태

- 대체로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보입니다. 부족한 특정 열매에 집중하십시오.

d) 241-270점: 전반적 우수 상태

-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며 섬기십시오.

2) 개인별 처방전

각 열매별 총점을 계산하여 가장 낮은 3가지를 선택하고, 다음 처방을 따르십시오:

a) 1순위 열매 (가장 부족한 것)

- 매일 아침 이 열매를 위해 5분 기도하고, 관련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하며, 하루 한 번 의도적으로 실천합니다.

b) 2순위 열매

- 주 3회 이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관련 책이나 설교를 들으며, 주 1회 실천 계획을 수립

합니다.

c) 3순위 열매

- 주 1회 점검 및 기도하고, 롤모델을 찾아 관찰하며, 월 1회 평가 및 피드백을 받습니다.





2 장

/

사랑 모든 열매의 근원

제 2 장 사랑, 모든 열매의 근원

훈련 목적

- *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한다
- * 네 가지 사랑의 차이점을 구분한다
- *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고린도전서 13:4-7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조 구절: 요한일서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1. 사랑의 본질적 이해

가. 원어적 이해

1) 헬라어의 네 가지 사랑

a) 에로스(ἔρως, Eros)

- '에로스'는 육체적, 감각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과 소유욕을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욕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 현대적 의미로는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 성적 매력, 열정적인 끌림 등을 포함합니다. 이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며, 결혼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가서는 이러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b) 필리아(φιλία, Philia)

- '필리아'는 우정의 사랑, 형제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따뜻한 애정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필라델피아(φιλαδέλφια, 형제

사랑)로 자주 나타납니다.

- 로마서 12:10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사랑이며,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이 사랑의 좋은 예입니다.

c) 스토르게(στοργή, Storge)

-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자연적 애정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신약에 나타나지 않지만, '필로스토르고스(φιλόστοργος)'라는 합성어로 로마서 12:10에 사용됩니다.
- 이것은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애정이며, 보호본능과 희생정신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연적 사랑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 10:37).

d) 아가페(ἀγάπη, Agape)

- '아가페'는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입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이 단어를 신약 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반응이나 자격과 무관하게

베푸는 의지적 사랑입니다.

2) 아가페의 독특성

a) 의지적 선택

-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는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이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낌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상대방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심지어 적대적일 때도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b) 무조건성

- 아가페는 조건이 없습니다. "~한다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입니다. 로마서 5:8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 이 무조건성은 상대방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보답하

지 않아도, 심지어 더 악해져도 사랑은 계속 됩니다.

나. 구약의 배경

1) 헤세드(חֶסֶד) - 언약적 신실한 사랑

a) 언약 관계 속의 사랑

- 히브리어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며, 상대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인자하심입니다.
- 출애굽기 34:6-7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헤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입니다.

b) 호세아서의 극적 표현

- 호세아서는 헤세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녀가 계속 배신해도 다시 찾아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였습니다.

-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호 2:19). 이것이 헤세드의 본질입니다.

2) 아하브(אהב) - 선택하는 사랑

a) 하나님의 선택

- 신명기 7:7-8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구약적 기초입니다.

b) 쉼마의 명령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 사랑이 명령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의지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랑

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1) 성육신 - 낮아지신 사랑

a) 케노시스(κένωσις) - 자기 비움

- 빌립보서 2:6-8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이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를 입으시고, 영광의 주가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b) 동일시의 사랑

- 히브리서 4:15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합니다.
-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 피곤함, 슬픔,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 공생애 - 섬기는 사랑

a) 치유와 회복의 사랑

-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합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고(막 1:41),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눅 15:1-2),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요 8:11),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막 10:14).
-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사회적 경계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요 4장), 로마 백부장(마 8장), 가나안 여인(마 15장) 등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b) 제자들을 향한 인내의 사랑

- 요한복음 13:1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연약함,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 베드로의 삼중 부인을 미리 아시면서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눅 22:32)라고 하신 것,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3) 십자가 - 희생의 사랑

a) 대속적 사랑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 십자가는 사랑의 정점입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 생명이 죽은 자를 위해, 거룩한 자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b) 용서의 사랑

-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극한의 고통 중에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극치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사랑의 부활과 확증

1) 베드로의 회복

a) 세 번의 사랑 확인

-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요 21:15-

17).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처음 두 번은 '아가 파오(ἀγαπάω, 아가페 동사형)'를 사용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φιλέω, 필리아 동사형)'로 답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아가페의 사랑을 자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b) 사명으로의 회복

-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3. 고린도전서 13장 - 사랑의 특성

가. 사랑의 필수성 (1-3절)

1) 은사보다 중요한 사랑

a) 방언과 예언보다

-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팡과리가 되고"(1절). 아무리 놀라운 영적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합니다.

- 방언은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통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b) 지식과 믿음보다

-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2절).
- 신학적 지식, 영적 통찰력, 기적을 행하는 믿음도 사랑 없이는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통 신학은 차가운 율법주의가 되고, 사랑 없는 믿음은 교만이 됩니다.

2) 희생보다 중요한 사랑

-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3절).
- 외적인 희생과 봉사도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무익합니다. 의무감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죄책감에서 나온 행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 사랑의 15가지 특성 (4-7절)

1) 긍정적 특성 (사랑이 하는 것)

a) 오래 참고 (μακροθυμεί)

- '마크로뒤메오'는 '긴 성질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인내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참아주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벧후 3:15).

b) 온유하며 (χρηστεύεται)

- '크레스튜오마이'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의 적극적 표현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c) 모든 것을 참으며 (πάντα στέγει)

- '스테고'는 '덮는다',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

d) 모든 것을 믿으며 (πάντα πιστεύει)

- 최선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정죄하기보다 신뢰하고 격려합니다.

e) 모든 것을 바라며 (πάντα ἐλπίζει)

-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합니다.

f)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πάντα ὑπομένει)

- '휘포메노'는 무거운 짐 아래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지속합니다.

2) 부정적 특성 (사랑이 하지 않는 것)

- 시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함
-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음
-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함
-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예의와 배려
-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타적
- 성내지 않으며: 감정 조절
-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용서하고 잊음
-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죄를 미워함
-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의를 사랑함

4. 실천적 적용

가. 사랑의 대상별 실천

1) 하나님을 사랑하기

a) 예배와 순종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 매일의 경건의 시간, 주일 성수, 십일조와 헌금, 거룩한 삶 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표현입니다.

b) 친밀한 교제

- 아가서 2:16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 기도를 통한 대화, 말씀을 통한 음성 듣기, 찬양을 통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2) 이웃을 사랑하기

a) 가까운 사람부터

- 가족, 친구, 동료,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요일 4:20).
- 구체적 실천: 배우자에게 사랑 표현하기, 자녀와 시간 보내기,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

기, 형제자매와 화해하기.

b)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마 5:46). 진짜 사랑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실천 방법: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 좋은 점 찾아 칭찬하기, 필요를 채워주기, 먼저 인사하기.

3) 원수를 사랑하기

a) 축복하기

-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눅 6:28).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합니다.

b) 선대하기

-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나. 사랑의 훈련 방법

1) 매일의 사랑 훈련

a) 아침: 사랑의 결단

- 매일 아침 "오늘 내가 만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 구체적으로 오늘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b) 저녁: 사랑의 점검

- 하루를 돌아보며 사랑했던 순간과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을 점검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내일은 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2) 사랑의 언어 훈련

a) 5가지 사랑의 언어 이해

- 게리 채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인정하는 말/함께하는 시간/선물/봉사/스킨십
-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여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b) 긍정적 표현 훈련

- 비판보다 격려를, 정죄보다 용서를, 무시보

다 인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를 자주 말합니다.

3) 사랑의 행동 훈련

a) 작은 친절 실천

- 매일 세 가지 친절을 실천합니다
가족에게 한 가지
직장/학교에서 한 가지
낯선 사람에게 한 가지

b) 희생적 섬김

- 주 1회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을 희생하여 누군가를 섬깁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구제 등을 실천합니다.

5. 자가 진단 및 평가

가. 사랑 점검표

각 항목을 1-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1) 하나님께 대한 사랑

-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가? (/ 10)
-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 10)
- 예배를 사모하는가? (/ 10)

2) 가족에 대한 사랑

-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가? (/ 10)
-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 10)
-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 10)

3) 이웃에 대한 사랑

-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가? (/ 10)
- 험담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가? (/ 10)
- 용서하고 화해하는가? (/ 10)

4) 원수에 대한 사랑

-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가? (/ 10)
- 악을 선으로 갚는가? (/ 10)
- 원수를 축복하는가? (/ 10)

나. 평가 결과 분석 및 처방

1) 전체 평가 (총 120점 만점 기준)

a) 12-35점: 전반적 위급 상태

- 사랑의 열매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영적 회복과 사랑의 본질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b) 36-70점: 전반적 개선 필요

- 여러 영역에서 사랑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사랑 훈련 계획을 세우십시오.

c) 71-105점: 전반적 양호 상태

- 대체로 균형 잡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특정 영역에 집중하십시오.

d) 106-120점: 전반적 우수 상태

-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며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2) 영역별 처방전

각 영역별(하나님, 가족, 이웃, 원수) 총점을 계산하여 가장 낮은 영역을 선택하고, 다음 처방을 따르십시오:

a) 1순위 영역 (가장 부족한 것)

- 매일 아침 이 영역의 사랑을 위해 5분 기도하고, 관련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하며, 하루 한 번 의도적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b) 2순위 영역

- 주 3회 이 영역을 위해 기도하고, 관련 책이나 설교를 들으며, 주 1회 실천 계획을 수립합니다.

c) 3순위 영역

- 주 1회 점검 및 기도하고, 롤모델을 찾아 관찰하며, 월 1회 평가 및 피드백을 받습니다.

라. 성장 계획 수립

1) 단기 목표 (1개월)

- 한 사람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사랑하기
- 매일 사랑의 행동 한 가지 실천
- 사랑장(고전 13장) 암송

2) 장기 목표 (6개월)

- 원수였던 사람과 화해
-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
- 사랑의 멘토 되기





3 장

/

희락과 화평

제 3 장 희락과 화평

훈련 목적

- * 희락과 화평의 원어적 의미와 본질을 이해한다
- * 상황적 행복과 영적 희락의 차이를 구분한다
- *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훈련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빌립보서 4:4-7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조 구절: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하니라”

1. 희락(Joy)의 본질적 이해

가. 원어적 이해

1) 카라(χαρά)의 의미

a) 어원과 기본 의미

- '카라(χαρά)'는 '카이로(χαίρω, 기뻐하다)'에서 파생된 명사로, 깊은 내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카리스(χάρις, 은혜)'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 희락이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 흥미롭게도 신약성경에서 카라는 60회 이상 사용되었는데, 그 중 상당수가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희락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적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b) 구약의 배경 - 시므하(שמחה)

- 히브리어 '시므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시편 16:11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 구약에서 기쁨은 특별히 절기와 연결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때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칠 일 동안 기뻐할지니라”(레 23:40).

2) 행복(Happiness)과 희락(Joy)의 차이

a) 행복 - 외적 상황에 의존

- 행복(happiness)은 'happen(일어나다)'과 같은 어원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 이것은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좌우됩니다. 얻었다가 잃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차원에 머물습니다

b) 희락 - 내적 확신에 기초

- 희락(joy)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 상태입니다.
- 이것은 영원하고 지속적입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영적 차원의 경험입니다
- 예수님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요 16:22)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입니다.

나. 희락의 근원

1) 구원의 기쁨

a) 죄 용서의 기쁨

- 시편 32:1-2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합니다.
-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것,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b) 영생의 확신

-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때 오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8)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확신 때문입니다.

2) 임재의 기쁨

a) 성령의 내주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갈 5:22). 희락은 성령의 임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 사도행전 13:52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과 기쁨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b) 주님과 교제

-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일 1:3-4).
-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찬양 중에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2. 화평(Peace)의 본질적 이해

가. 원어적 이해

1) 에이레네(εἰρήνη)의 의미

a) 샬롬(shalom)의 번역

-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 샬롬은 단순한 평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완전함(Completeness) -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
샬롬은 무언가가 빠지거나 모자라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퍼즐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채워진 상태입니다. 시편 23:1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바로 이 완전함을 표현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한 공급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신 8:4)는 것이

샬롬의 완전함입니다.

- 온 전 함 (Wholeness) - 깨
어 지 지 않 은 통 합 성
샬롬은 깨어지거나 분열되지 않은 온
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
히 물리적 온전함만이 아니라 인격의
통합성, 관계의 온전함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막 5:34)고 하신 것은 단순한 육
체의 치유를 넘어 그녀의 전 존재가 온
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
다. 12년간의 질병으로 깨어진 몸, 부정
한 자로 격리되어 깨어진 관계, 모든 재
산을 잃어 깨어진 경제, 소망을 잃어 깨
어진 영혼이 모두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
니다.
- 안 녕 (Welfare) - 모든 영
역 에 서 의 안 전 과 평 안
샬롬은 위협이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
태, 근심과 염려가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외적 환경의 안전뿐
아니라 내적 심령의 안녕을 포함합니다.
예레미야 29:11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
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샬롬)이요 재앙
이 아니니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시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안녕임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환경은 위험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완전한 안녕 가운데 있었습니다.

- 번영(Prosperity) - 풍성함과 번창함
샬롬은 단순히 부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질적 번영만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풍요를 포함합니다. 시편 122:6-7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샬롬)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에서 샬롬과 형통(번영)이 함께 사용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누린 것, 다윗이 왕이 되어 경험한 것, 솔로몬 시대의 황금기가 모두 샬롬의 번영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왕상 4:25).
- 조화(Harmony) - 모든 관계의 아름다운 균형
샬롬은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균

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사야 11:6-9의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완벽한 샬롬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은 창조 때의 에덴동산의 회복이며,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의 완전한 조화입니다.

b) 관계적 개념

- 샬롬/에이레네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개념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 하나님과의 화평 (수직적)
 - 자기 자신과의 화평 (내적)
 - 타인과의 화평 (수평적)
 - 피조물과의 화평 (환경적)

2)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

a) 팩스 로마나(Pax Romana) - 강압적 평화

- 로마 시대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강압적 평화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면에는 억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 오늘날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입니다. 경제적 안정, 정치적 안정, 사회적 인정 등으로 얻는 평안은 상황이 바뀌면 즉시 사라집니다.

b) 그리스도의 평강 - 내적 평안

-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 그리스도의 평강은:
 -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 환경을 초월합니다
 - 영원히 지속됩니다
 - 이해를 초월합니다

나. 화평의 기초

1) 칭의를 통한 화평

a) 하나님과의 화목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고,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b) 양심의 평안

-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해방되어 양심의 평안을 누립니다.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고, 현재의 연약함이 덮어졌으며, 미래의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2) 섭리를 믿는 평안

a) 주권적 통치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은 깊은 평안을 줍니다. 실패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알 때 평안합니다.

b) 공급하심의 확신

-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평안,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3.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락과 화평

가. 예수님의 희락

1) 성령 안에서의 기쁨

a) 사역의 기쁨

-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눅 10:21).
-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b) 순종의 기쁨

-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순종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2) 십자가를 향한 기쁨

a) 고난 중의 기쁨

-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히 12:2).
-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구원받을 영혼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사명 완수의 기쁨이 십자가를 견디게 했습니다.

b) 부활의 기쁨

-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요 16:22).
- 부활은 궁극적 기쁨의 원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 예수님의 평강

1) 풍랑 속의 평안

a) 갈릴리 바다의 풍랑

-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 더니"(막 4:38).
-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나온 평안이었습니다.

b) 풍랑을 잔잔케 하심

-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9).
- 예수님은 평안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연도, 환경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2) 십자가 앞에서의 평안

a) 겟세마네의 기도

-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 극한의 고뇌 중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평안입니다.

b) 빌라도 앞에서의 침묵

- "빌라도가 다시 묻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막 15:4-5).
- 억울한 고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의 담대한 평안이었습니다.

4. 희락과 화평의 관계

가. 상호보완적 관계

1) 평안이 기쁨을 낳음

a) 안정된 마음의 기쁨

-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이니이다"(사 26:3).
- 마음이 평안할 때 진정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b) 화해의 기쁨

-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이룰 때 기쁨이 넘칩니다. 탕자와 아버지의 화해, 요셉과 형제

들의 화해가 가져온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2) 기쁨이 평안을 강화함

a) 기쁨의 힘

- "여호와와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힘은 평안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기쁜 마음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b) 감사가 가져오는 평안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 감사는 기쁨의 표현이며, 감사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나. 시련 중의 희락과 화평

1) 고난의 유익

a) 인내를 통한 성숙

-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약 1:2-3).
- 시련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b) 영광의 소망

-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
- 현재의 고난은 장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2) 감옥에서의 찬송

a) 바울과 실라의 예

-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행 16:25).
-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환경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b) 빌립보서 - 기쁨의 서신

-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일 곧 매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빌 1:13). 바울은 감옥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5. 실천적 적용

가. 희락을 기르는 방법

1) 감사의 훈련

a) 감사 일기 쓰기

-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감사한 일 10가지를 기록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 예시:
 -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감사
 - 가족의 건강에 감사
 - 직장이 있음에 감사
 - 구원받은 것에 감사

b) 감사 기도

- 기도할 때 간구보다 감사를 먼저 하고 더 많

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2) 찬양의 생활

a) 일상의 찬양

- 운전할 때, 집안일 할 때, 산책할 때 찬양합니다. 찬양은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증폭시킵니다.

b) 새벽의 찬양

- "여호와여 사랑으로 내 음성을 들으소서 내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바라보리이다"(시 5:3).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면 온종일 기쁨이 지속됩니다.

3) 말씀 묵상

a) 약속의 말씀 암송

- 하나님의 약속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기쁨이 샘솟습니다:
 -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요 16:22)
 -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

이다”(렘 15:16)

b) 시편 묵상

- 특별히 시편은 기쁨의 보고입니다. 시편 16, 23, 27, 34, 42, 63, 84, 100편 등을 반복해서 묵상합니다.

나.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

1) 염려를 내려놓기

a) 기도로 맡기기

-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7).
- 구체적 실천:
 - 염려 상자 만들기: 종이에 염려를 적어 상자에 넣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 염려 시간 정하기: 하루 15분만 염려하고 나머지는 맡깁니다
 -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염려가 올 때마다 즉시 기도합니다

b) 오늘에 집중하기

-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
- 오늘 할 일에만 집중하고, 내일 일은 내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2) 용서와 화해

a) 신속한 용서

-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엡 4:26). 분노와 원한을 품으면 평안을 잃습니다. 즉시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b) 먼저 화해하기

-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마 5:23-24).

3) 하나님의 주권 인정

a) 신뢰의 고백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 매일 아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를 고백합니다.

b) 순종의 삶

-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10). 순종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니다.

다. 공동체 안에서의 희락과 화평

1) 함께 기뻐하기

a) 기쁨의 나눔

-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롬 12:15).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b) 격려의 사역

-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어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살전 5:11).

2) 평화 만들기

a) 화평케 하는 자

-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b) 평화의 도구

- "화평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
- 분열보다 연합을, 다툼보다 화해를 추구합니다.

6. 자가 진단 및 평가

가. 희락 점검표

각 항목을 1-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1) 일상의 기쁨

- 아침에 기쁘게 일어나는가? (/ 10)
-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가? (/ 10)
-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가? (/ 10)

2) 예배의 기쁨

-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가? (/ 10)
-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는가? (/ 10)
-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가? (/ 10)

3) 시련 중의 기쁨

-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 10)
-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가? (/ 10)
-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 10)

나. 화평 점검표

각 항목을 1-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1) 내적 평안

-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 10)
- 염려와 불안이 적은가? (/ 10)
- 밤에 평안히 잠드는가? (/ 10)

2) 관계의 평화

- 모든 사람과 화목한가? (/ 10)
-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가? (/ 10)
- 용서를 잘 하는가? (/ 10)

3) 환경 초월의 평안

- 상황이 어려워도 평안한가? (/ 10)
-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가? (/ 10)
-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 10)

다. 평가 결과 분석 및 처방

1) 전체 평가 (총 180점 만점 기준)

a) 18-50점: 전반적 위급 상태

- 희락과 화평이 매우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영적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b) 51-100점: 전반적 개선 필요

- 여러 영역에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감사 훈련과 신뢰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작하십시오.

c) 101-150점: 전반적 양호 상태

- 대체로 균형 잡힌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특정 영역에 집중하십시오.

d) 151-180점: 전반적 우수 상태

-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멘토링하십시오.

2) 영역별 처방전

희락과 화평 각 영역의 점수를 비교하여 낮은 영역에 집중하고, 다음 처방을 따르십시오:

a) 희락 부족시 처방

- 매일 감사 일기 10가지 쓰기
- 찬양 시간 늘리기 (하루 30분 이상)
- 기쁨 관련 성경구절 암송
-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찾기

b) 화평 부족시 처방

- 매일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기
- 신뢰의 말씀 묵상 (시편 23편, 91편 등)
- 침묵 기도 실천 (하루 20분)

라. 성장 계획 수립

1) 단기 목표 (1개월)

- 감사 일기 30일 작성
- 염려 내려놓기 훈련
- 찬양으로 하루 시작하기

2) 장기 목표 (6개월)

- 환경을 초월한 기쁨 체험
- 모든 관계에서 화평 이루기
- 희락과 화평의 전도자 되기





4 장

/

오래참음, 자비, 양선

제 4 장 오래참음, 자비, 양선

훈련 목적

- * 오래참음, 자비, 양선의 원어적 의미를 이해한다
- * 세 가지 열매의 상호연관성과 관계적 특성을 파악한다
- * 대인관계에서 이 열매들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을 훈련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골로새서 3:12-13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보조 구절: 베드로후서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 오래참음(Longsuffering)의 본질적 이해

가. 원어적 이해

1) 마크로뒤미아(μακροθυμία)의 의미

a) 어원과 구성

- '마크로뒤미아'는 '마크로스(μακρός, 긴)'와 '뒤모스(θυμός, 성질, 분노)'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 '긴 성질' 또는 '분노를 늦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ὑπομονή, 휘포모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휘포모네가 어려운 환경이나 시련을 견디는 것이라면, 마크로뒤미아는 사람들의 잘못이나 공격을 참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b) 구약의 배경 - 에렉 아파임(עֵרֶק אֶפַיִם)

- 히브리어 '에렉 아파임'은 문자적으로 '콧구멍이 길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분노를 콧김으로 표현했기에, 콧구멍이 길다는 것은 화가 나서 콧김을 내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 출애굽기 34:6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와라 여호와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에렉 아파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오래참음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2) 오래참음의 특성

a) 보복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는 것

- 오래참음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롬 2:4).

b) 사랑의 첫 번째 표현

- 고린도전서 13:4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오래참음은 사랑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참기 때문에 사랑이 지속됩니다.

나. 하나님의 오래참으심

1)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

a) 노아 시대의 120년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창 6:3).
- 하나님은 홍수 심판 전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벧전 3:20)라고 표현합니다.

b)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역

-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고"(시 106:44-45).
-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역과 하나님의 오래참으심의 역사입니다. 범죄-심판-부르짖음-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

a)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눅 15:20)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먼 곳을 바라보았음을 암시합니다.

b)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마 23:37).
- 예수님은 계속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2. 자비(Kindness)의 본질적 이해

가. 원어적 이해

1) 크레스토테스(χρηστότης)의 의미

a) 어원과 의미

- '크레스토테스'는 '크레스토스(χρηστός, 유

용한, 선한)'에서 파생되었으며, '크라오마 이(χράομαι, 사용하다, 유용하다)'와 연결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 흥미롭게도 '크레스토스(Chrestos)'와 '크리스토스(Christos, 그리스도)'의 발음이 비슷하여, 초대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크레스티아노이(Chrestianoι, 친절한 사람들)'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b) 구약의 배경 - 토브(טוב)

- 히브리어 '토브'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유익한'을 의미합니다. 시편 34:8은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토브)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2) 자비의 특성

a) 부드러운 친절

- 자비는 거친 사랑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성품입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χρηστός)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마 11:30)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멍え를 '크레스토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b) 실제적 도움

- 자비는 감정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보인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자비

1) 연약한 자를 향한 자비

a) 병든 자들에게

-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35).
-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b) 죄인들에게

-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예수께 가까이 나아와 들으니"(눅 15:1).
-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죄인

들을 예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

2) 십자가에 나타난 자비

a) 용서의 자비

-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극치의 자비입니다.

b) 구원의 자비

- 십자가 상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약속하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3. 양선(Goodness)의 본질적 이해

가. 원어적 이해

1) 아가토쉬네(ἀγαθωσύνη)의 의미

a) 어원과 의미

- ‘아가토쉬네’는 ‘아가토스(ἀγαθός, 선한)’에

서 파생된 추상명사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선함과 그 선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비(크레스토테스)가 부드러운 친절이라면, 양선(아가토쉬네)은 더 적극적이고 때로는 단호한 선함입니다. 양선은 필요하다면 징계와 책망도 포함합니다.

b) 구약의 배경 - 헤세드(חֶסֶד)와 토브(טוֹב)

- 양선은 히브리어 '헤세드(언약적 사랑)'와 '토브(선함)'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2) 양선의 특성

a) 적극적 선행

- 양선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b) 의로운 분노를 포함

- 양선은 때로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양선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마 21:13).

나. 하나님의 양선

1) 창조에 나타난 선하심

a) 보시기에 좋았더라

-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토브)"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셨습니다.

b) 선한 선물을 주심

-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

2) 구원에 나타난 선하심

a) 선한 목자

-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양선입니다.

- b)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4. 세 열매의 상호관계

가. 관계의 진전

1) 오래참음 → 자비 → 양선

- a) 단계적 발전
 - 이 세 가지 열매는 관계의 발전 단계를 보여 줍니다:
 - 오래참음: 상대방의 잘못을 견디는 단계
 - 자비: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는 단계
 - 양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돕는 단계
- b) 통합적 작용
 - 실제로 이 세 열매는 동시에 작용합니다. 오래참으면서도 자비롭고, 자비로우면서도 선을 행합니다. 이것들은 사랑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2) 실제적 예시

a) 부모의 사랑

-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오래 참고(오래참음), 따뜻하게 대하며(자비), 필요할 때는 훈계도 합니다(양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양육이 됩니다.

b) 목회자의 돌봄

- 목회자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인내하고(오래참음),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며(자비), 때로는 권면과 책망도 합니다(양선).

나.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

1) 교회 공동체

a) 다양성 속의 일치

-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성격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오래 참고, 자비롭게 대하며, 선을 행할 때 하나 됨을 이룹니다.

b) 은사의 상호보완

-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전

12:26).

2) 가정 공동체

a) 부부 관계

-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
-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오래 참고, 자비롭게 대하며, 서로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b) 부모와 자녀

-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5. 실천적 적용

가. 오래참음의 훈련

1) 인내력 기르기

a) 작은 것부터 시작

- 줄 서서 기다리기
- 교통 체증에서 짜증내지 않기
- 느린 인터넷 속도 참기

- 이런 작은 훈련이 사람에게 대한 인내로 발전합니다.

b) 호흡과 기도

-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인내를 주소서. 당신이 저를 참으신 것처럼 저도 참게 하소서."

2) 관계에서의 인내

a) 기다림의 훈련

- 배우자가 변화하기를 기다림
-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다림
- 동료가 깨닫기를 기다림

b) 70번씩 일곱 번

-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 지니라"(마 18:21-22).

나. 자비의 실천

1) 일상에서의 친절

a) 미소와 인사

- 먼저 인사하기
- 따뜻한 미소 짓기
- 감사 표현하기

b) 작은 배려

- 문 잡아주기
- 자리 양보하기
- 도움 제안하기

2) 필요를 채우는 자비

a) 경청의 자비

-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약 1:19).

b) 실제적 도움

- 아픈 사람 병문안
- 어려운 이웃 돕기
- 외로운 사람 찾아가기

다. 양선의 실천

1) 적극적 선행

a) 선을 행할 기회 찾기

-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
- 매일 아침 "오늘 내가 누구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b) 계획적 선행

- 정기적 봉사활동
- 정기 후원
- 멘토링

2) 의로운 용기

a) 불의에 맞서기

-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너는 말 못 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b) 진리를 말하기

-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6. 자가 진단 및 평가

가. 오래참음 점검표

각 항목을 1-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1) 일반적 인내

- 기다림을 잘 하는가? (/ 10)
- 계획대로 안 될 때 참을 수 있는가? (/ 10)
- 반복되는 실수를 참아주는가? (/ 10)

2) 사람에 대한 인내

- 느린 사람을 참아주는가? (/ 10)
- 실수하는 사람을 용납하는가? (/ 10)
-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참는가? (/ 10)

3) 영적 인내

- 기도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가? (/ 10)
-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기다리는가? (/ 10)
-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가? (/ 10)

나. 자비 점검표

각 항목을 1-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1) 태도의 자비

- 부드럽게 대하는가? (/ 10)
-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가? (/ 10)
-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가? (/ 10)

2) 행동의 자비

- 실제적 도움을 주는가? (/ 10)
- 필요를 채워주는가? (/ 10)
- 위로와 격려를 하는가? (/ 10)

3) 마음의 자비

-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 10)
-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가? (/ 10)
-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하는가? (/ 10)

다. 양선 점검표

각 항목을 1-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1) 선행의 적극성

- 선을 행할 기회를 찾는가? (/ 10)
- 먼저 나서서 돕는가? (/ 10)
- 계획적으로 선을 행하는가? (/ 10)

2) 선행의 지속성

- 꾸준히 선을 행하는가? (/ 10)
-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는가? (/ 10)
- 보상 없이도 선을 행하는가? (/ 10)

3) 의로운 행동

-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가? (/ 10)
- 약자를 보호하는가? (/ 10)

- 진리를 위해 서는가? (/ 10)

라. 평가 결과 분석 및 처방

1) 전체 평가(총 270점 만점 기준)

- a) 27-80점: 전반적 위급 상태
 - 관계적 열매가 매우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성품 변화와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 b) 81-160점: 전반적 개선 필요
 - 여러 영역에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관계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 c) 161-240점: 전반적 양호 상태
 - 대체로 균형 잡힌 관계적 성품을 보입니다. 부족한 특정 영역에 집중하십시오.
- d) 241-270점: 전반적 우수 상태
 - 성숙한 관계적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며 본이 되십시오.

2) 영역별 처방전

각 열매별(오래참음, 자비, 양선) 점수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영역에 집중하고, 다음 처방을 따르십시오:

a) 오래참음 부족시 처방

- 매일 인내 일지 작성 (참았던 일, 참지 못한 일 기록)
- 화가 날 때 10초 세기
- 느린 사람과 의도적으로 시간 보내기
- 오래참음 관련 말씀 묵상 (약 1:19-20, 잠 14:29)

b) 자비 부족시 처방

- 하루 3번 친절함 행동하기
- 칭찬과 격려의 말 의도적으로 하기
-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찾아 돕기
- 자비 관련 말씀 묵상 (엡 4:32, 골 3:12)

c) 양선 부족시 처방

- 주 1회 봉사활동 참여
- 불의를 보면 바로잡기
-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 양선 관련 말씀 묵상 (갈 6:9-10, 딤후 3:14)





5 장

/

충성, 온유, 절제

제 5 장 충성, 온유, 절제

훈련 목적

- * 충성, 온유, 절제의 원어적 의미와 본질을 이해한다
- *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내는 내적 강함과 성숙함을 파악한다
- *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마태복음 11:29-30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보조 구절: 잠언 16: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 충성(Faithfulness)의 본질적 이해

가. 원어적 이해

1) 피스티스(πίστις)의 이중적 의미

a) 믿음과 신실함

- '피스티스'는 독특하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faith)'이고, 다른 하나는 '신실함(faithfulness)'입니다. 이 두 의미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한 삶을 살게 되고, 신실한 삶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 성령의 열매로서의 피스티스는 주로 '신실함', '충성됨', '믿음직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일관성,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나타냅니다.

b) 구약의 배경 - 에무나(אמונה)

- 히브리어 '에무나'는 '아만(אמן, 확고하다, 견고하다)'에서 파생되었으며, '견고함', '확실함',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2:4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믿음'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 시편 36:5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에무나)이 공중에 사무쳤으며"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

양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2) 충성의 특성

a) 작은 일에서의 신실함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 충성은 큰 일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의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한 것이 충성의 기초입니다.

b) 끝까지 지속되는 신실함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 충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1)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a) 아브라함과 의 언약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400년의 애굽 생활,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b) 다윗과의 언약

-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
-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했을 때도, 나라가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2) 일상에서의 신실하심

a) 매일의 새로운 자비

-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애 3:23).
-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일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b) 시험 중의 신실하심

-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요"(고전 10:13).
-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2. 온유(Meekness)의 본질적 이해

가. 원어적 이해

1) 프라우테스(πραῦτης)의 의미

a) 통제된 힘

- '프라우테스'는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 '길들여진 강함'을 의미합니다. 고대 헬라에서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생마는 여전히 강하지만, 이제 그 힘이 통제되고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라우테스를 "정당한 때에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미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감정

의 적절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b) 구약의 배경 - 아나브(אָנאָב)

- 히브리어 '아나브'는 '낮추다', '굴복하다'는 의미의 '아나(אָנ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복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2:3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겸손이었습니다.

2) 온유의 특성

a) 겸손과 부드러움

-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거칠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부드럽게 대합니다.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 15:1).

b) 가르침을 받는 자세

-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도다"(시 25:9).
- 온유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나. 그리스도의 온유

1) 온유한 왕

a) 나귀를 타고 입성

-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마 21:5).
- 예수님은 전쟁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b) 자기를 낮추심

-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빌 2:6-7).
- 예수님의 온유는 자발적인 낮아짐이었습니다.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2) 온유한 가르침

a)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심

-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사 42:3).
-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간음한 여인, 세리 마태, 부인한 베드로를 온유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b) 어린이를 축복하심

-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마 19:14).
- 당시 문화에서 무시받던 어린이들을 예수님은 온유하게 맞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3. 절제(Self-Control)의 본질적 이해

가. 원어적 이해

1) 앵크라테이아(ἐγκράτεια)의 의미

a) 내적 지배력

- '앵크라테이아'는 '엔(ἐν, 안에)'과 '크라토스(κράτος, 힘, 권세)'의 합성어로, '내적 지배력',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구, 감정, 충동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다.

- 바울은 이를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고전 9:25).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 자신을 절제하듯, 그리스도인도 영적 승리를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b) 구약의 배경 - 마츠아르(מצור)

- 히브리어 '마츠아르'는 '아차르(צָר, 억제하다, 제한하다)'에서 파생되어 '자제', '절제'를 의미합니다. 잠언 25:28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2) 절제의 영역

a) 육체적 절제

- 음식: 과식하지 않고 적절히 먹기
- 음료: 술 취하지 않고 절도 있게 마시기
- 성: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을 누리기
- 수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

b) 정신적 절제

- 생각: 음란하고 부정적인 생각 제어
- 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기
- 감정: 분노와 좌절을 다스리기

- 욕구: 탐욕과 욕심 제어하기

나. 절제의 능력

1) 성령의 능력

a) 육체를 이기는 힘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 절제는 인간의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습니다.

b) 새로운 본성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어 절제가 가능합니다.

2) 훈련을 통한 성장

a) 경건의 연습

-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

사에 유익하니”(딤후 4:7-8).

- 절제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발전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것으로 나아갑니다.

b) 점진적 성장

-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벧후 1:5-6).
- 절제는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덕목입니다.

4. 세 열매의 상호관계

가. 내적 성숙의 표현

1) 충성 → 온유 → 절제

a) 발전 단계

- 충성: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실함
- 온유: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
- 절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 이 세 가지는 영적 성숙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온유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자기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b) 균형과 조화

- 세 가지 열매는 서로 균형을 이룹니다. 충성 없는 온유는 나약함이 되고, 온유 없는 절제는 율법주의가 되며, 절제 없는 충성은 광신 이 됩니다.

2) 내적 강함의 증거

a) 진정한 능력

-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
- 이 세 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외적 힘이 아니라 내적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b) 영적 권위

- 충성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사람은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존경하게 됩니다.

나. 리더십에서의 적용

1) 섬기는 리더십

a) 충성된 청지기

-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라”(고전 4:2).

- 리더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구합니다.

b) 온유한 목자

-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벧전 5:2).
- 리더는 권위적이지 않고 온유하게 섬깁니다. 양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며 인도합니다.

c) 절제하는 모범

-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딤후 2:7).
- 리더는 모든 면에서 절제의 본을 보입니다. 말, 행동, 습관에서 모범이 됩니다.

2) 가정에서의 적용

a) 충성된 배우자

- 결혼 서약에 충실하고, 배우자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b) 온유한 부모

-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온유하게 양육합니다.

c) 절제하는 본

- 가정에서 절제의 모범을 보여 자녀들이 배우게 합니다.

5. 실천적 적용

가. 충성을 기르는 방법

1) 작은 일부터 시작

a) 시간 약속 지키기

- 약속 시간 5분 전 도착
- 예배 시간 엄수
- 정해진 기도 시간 지키기

b) 맡은 일 완수

- 교회 봉사 충실히 하기
- 직장 업무 성실히 수행
- 가정의 책임 다하기

2) 일관성 유지

a) 변함없는 태도

-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인정받든 못 받든 한결 같이 행합니다.

b) 끝까지 완주

-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 시작한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합니다.

나. 온유를 실천하는 방법

1) 낮아지는 훈련

a) 섬김의 자세

-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 낮은 자리 선택하기
- 자원하여 섬기기

b) 경청의 훈련

- 끝까지 듣기
-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 상대방 입장 이해하기

2) 부드러운 반응

a) 온유한 말

-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 15:1).
 - 화가 나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훈련을 합니다.
- b) 온유한 교정
- "누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갈 6:1).
 - 잘못을 지적할 때도 온유하게 합니다.

다. 절제를 훈련하는 방법

1) 구체적 목표 설정

- a) 영역별 절제 목표
- 식습관: 과식하지 않기, 금식 실천
 - 미디어: SNS 시간 제한, TV 시청 절제
 - 말: 험담하지 않기, 칭찬 많이 하기
 - 돈: 충동구매 자제, 십일조와 헌금
- b) 단계별 실천
- 한 번에 모든 것을 절제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정복해 나갑니다.

2) 책임과 점검

a) 동역자 세우기

- 서로 점검하고 격려할 수 있는 동역자를 둡니다.

b) 기록과 평가

- 절제 일지를 작성하여 진전 상황을 점검합니다.

6. 자가 진단 및 평가

가. 충성 점검표

각 항목을 1-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1) 하나님께 대한 충성

- 매일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가? (/ 10)
- 예배를 빠지지 않는가? (/ 10)
- 십일조와 헌금에 충실한가? (/ 10)

2) 사람에 대한 충성

- 약속을 잘 지키는가? (/ 10)
-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가? (/ 10)
-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 10)

3) 일관성

- 사람이 보지 않아도 충실한가? (/ 10)

-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는가? (/ 10)
- 작은 일에도 충성되는가? (/ 10)

나. 온유 점검표

각 항목을 1-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1) 겸손한 태도

- 자신을 낮출 수 있는가? (/ 10)
-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가? (/ 10)
-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 10)

2) 부드러운 성품

- 화가 나도 부드럽게 말하는가? (/ 10)
- 상처 주지 않고 교정하는가? (/ 10)
- 약한 자를 배려하는가? (/ 10)

3) 통제된 힘

-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 10)
- 힘이 있어도 낮은 자리를 택하는가? (/ 10)
- 섬기는 자세로 사는가? (/ 10)

다. 절제 점검표

각 항목을 1-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1) 육체적 절제

- 음식을 절제하는가? (/ 10)

- 잠을 절제하는가? (/ 10)
- 오락을 절제하는가? (/ 10)

2) 정신적 절제

- 생각을 절제하는가? (/ 10)
- 말을 절제하는가? (/ 10)
- 감정을 절제하는가? (/ 10)

3) 영적 절제

- 교만을 절제하는가? (/ 10)
- 욕심을 절제하는가? (/ 10)
- 판단을 절제하는가? (/ 10)

라. 평가 결과 분석 및 처방

1) 전체 평가(총 270점 만점 기준)

a) 27-80점: 전반적 위급 상태

- 내적 성숙이 매우 부족합니다. 기본적인 영적 훈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b) 81-160점: 전반적 개선 필요

- 여러 영역에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c) 161-240점: 전반적 양호 상태

- 대체로 균형 잡힌 내적 성숙을 보입니다. 부족한 특정 영역에 집중하십시오.

d) 241-270점: 전반적 우수 상태

-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십시오.

2) 영역별 처방전

각 열매별(충성, 온유, 절제) 점수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영역에 집중하고, 다음 처방을 따르십시오:

a) 충성 부족시 처방

- 작은 약속부터 철저히 지키기
-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말씀
- 맡은 일 목록 작성하고 점검
- 충성 관련 인물 연구 (요셉, 다니엘, 바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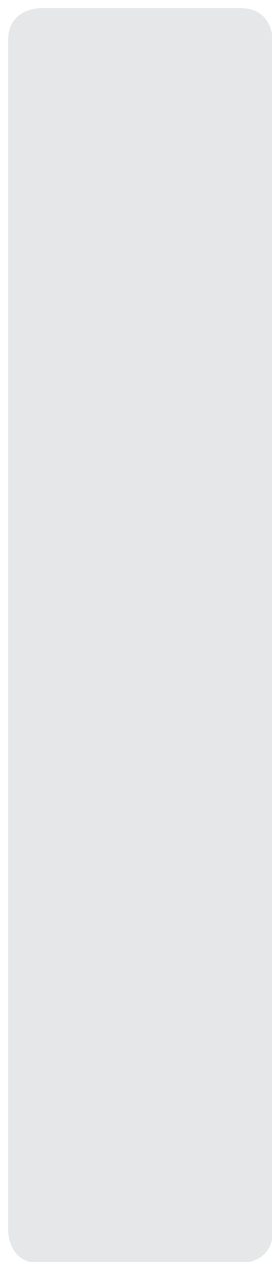
b) 온유 부족시 처방

- 하루 3번 자신을 낮추는 행동
- 화날 때 10초 기다리고 말하기
- 섬김의 기회 찾아 실천
- 예수님의 온유 묵상 (마 11:29)

c) 절제 부족시 처방

- 한 가지씩 절제 목표 정하기

- 금식 기도 실천
- 미디어 사용 시간 제한
- 절제 파트너와 매주 점검







6 장

/

성령의 열매 종합

제 6 장 성령의 열매 종합

훈련 목적

- *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유기적 연결성과 통합적 성장을 이해한다
- * 열매 맺는 과정의 단계와 성숙의 표지를 파악한다
- *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조 구절: 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1. 성령의 열매의 유기적 통합

가. 열매의 단수성과 다양성

1) 하나의 열매, 아홉 가지 맛

a) 단수로 표현된 이유

- 갈라디아서 5:22에서 '열매(καρπός)'는 단수입니다. 반면 '육체의 일들(ἔργα)'은 복수입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의 통일된 성품이며, 분리될 수 없는 전체임을 보여줍니다.
- 마치 오렌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열매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9가지 특성을 가진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한 가지만 있고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아닙니다.

b) 그리스도의 성품의 반영

-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특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2) 삼위일체적 구조

a) 세 그룹의 의미

-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희락, 화평): 위를 향한 열매
 - 타인과의 관계 (오래참음, 자비, 양선): 밖을 향한 열매
 - 자신과의 관계 (충성, 온유, 절제): 안을 향한 열매
- 이 구조는 예수님의 최대 계명과 일치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

b) 균형의 중요성

- 한 영역만 발달하고 다른 영역이 부족하면 기형적인 신앙이 됩니다:
 -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 신비주의적 은둔

- 타인과의 관계만 강조: 인본주의적 사회 복음
- 자신과의 관계만 강조: 금욕주의적 율법 주의

나. 열매들의 상호작용

1) 사랑 - 모든 열매의 근원

a)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들

- 사랑은 모든 열매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뻐하고(희락), 평안하며(화평), 이웃을 사랑하기에 참고(오래참음), 친절하며(자비), 선을 행하고(양선), 자신을 사랑하기에 충성되고(충성), 온유하며(온유), 절제합니다(절제).
-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는 말 씀처럼, 사랑 안에 모든 열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 사랑 없는 다른 열매의 공허함

-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
- 사랑 없는 희락은 이기적 쾌락이 되고, 사랑 없는 오래참음은 냉담한 무관심이 되며, 사

랑 없는 절제는 차가운 금욕이 됩니다.

2) 열매들의 상승작용

a) 서로를 강화시키는 열매들

- 각 열매는 다른 열매를 강화시키고 지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 이유입니다.
 - 희락이 있으면 오래참기 쉽습니다
 - 화평이 있으면 온유해집니다
 - 자비가 있으면 양선이 따릅니다
 - 충성이 있으면 절제가 가능합니다

b) 나선형 성장

- 성령의 열매는 직선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나선형으로 성장합니다. 한 열매가 자라면 다른 열매도 함께 자라고, 이것이 다시 처음 열매를 더 성장시킵니다. 이런 순환적 성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집니다.

2. 열매 맺는 과정과 단계

가. 열매 맺기의 전제조건

1) 거듭남 - 새 생명

a) 본성의 변화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먼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b) 접붙임

-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너로서는"(롬 11:17).
- 야생 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2) 성령 충만 - 지속적 공급

a) 성령의 기름부으심

-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 열매를 맺으려면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b) 매일의 충만

-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 성장의 단계

1) 씨앗 단계 - 말씀의 심김

a) 말씀의 씨

-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눅 8:11).
-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씨앗이 심겨집니다.

b) 좋은 땅

-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니라"(눅 8:15).
-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딱딱한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2) 새싹 단계 - 초기 변화

a) 작은 시작

-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도 작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차 자라납니다.

b) 연약함과 보호

- 새싹은 연약하여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돌봄과 격려가 중요합니다.

3) 성장 단계 - 가지치기

a) 시련을 통한 성장

-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 15:2).
-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b) 인내의 필요

-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히 10:36).
-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봄, 여

름을 지나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4) 결실 단계 - 풍성한 열매

a) 30배, 60배, 100배

- "어떤 것은 삼십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마 13:8).
- 성령의 열매는 점차 풍성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b) 계절을 따라

-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시 1:3).
- 열매는 계절을 따라 맺힙니다. 인생의 계절마다 다른 열매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3. 열매 맺기의 장애물과 극복

가. 내적 장애물

1) 육체의 욕심

a) 성령과 육체의 대립

-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니라”(갈 5:17).

-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이 있어 성령을 거스릅니다. 이것이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b) 십자가에 못 박음

-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2) 교만과 자만

a) 자기 의

-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b) 겸손의 필요

-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약 4:6).
- 겸손히 성령께 의존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 외적 장애물

1) 세상의 유혹

a) 세상 염려

-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눅 8:14).
-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열매 맺기를 방해합니다.

b) 분별력 필요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2).
-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 영적 전쟁

a) 마귀의 방해

-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눅 8:12).
- 마귀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심, 낙심, 정죄감을 주어 열매 맺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b) 영적 무장

-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1).
-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다. 극복의 방법

1) 지속적 교제

a) 그리스도 안에 거함

-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요 15:4).
-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교제가 열매 맺기의 비결입니다.

b) 공동체의 힘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
- 혼자서는 어렵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2) 인내와 끈기

a) 포기하지 않기

-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 열매는 즉시 맺히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b) 실패에서 배우기

-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잠 24:16).

4. 열매의 성숙과 완성

가. 성숙의 표지

1) 일관성

a) 환경을 초월

- 성숙한 열매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나타납니다.

b) 자연스러움

-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성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 균형

a) 9가지 열매의 조화

- 한 가지만 특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가 균형 있게 나타납니다.

b) 상황에 맞는 적용

-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자비가, 징계가 필요할 때는 양선이 나타납니다.

나. 그리스도의 형상

1) 궁극적 목표

a) 그리스도를 닮음

-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롬 8:29).
- 성령의 열매의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b) 장성한 분량

-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2) 영광스러운 변화

a) 점진적 변화

-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고후 3:18).
- 매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b) 완전한 변화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5. 열매 맺는 삶의 영향력

가. 개인적 변화

1) 내적 평안과 기쁨

a) 환경을 초월한 평안

-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

b) 깊은 만족

-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2) 삶의 목적과 의미

a) 분명한 정체성

-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삶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b) 영원한 가치

-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 공동체적 영향

1) 빛과 소금의 역할

a) 세상의 빛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16).

-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b) 세상의 소금

-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사회를 정화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2) 전도와 선교

a) 살아있는 간증

- "너희가 친히 나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후 3:2).
-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자체가 강력한 전도입니다.

b) 하나님 나라 확장

-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다. 영원한 상급

1) 천국에서의 상급

a) 면류관

-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8).

-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삶에는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b) 주님의 칭찬

-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
-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2) 영원한 열매

a) 영원히 남는 열매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요 15:16).
- 성령의 열매는 영원히 남습니다.

b) 계속되는 영향력

- 우리가 맺은 열매는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열매반 교재

초판발행 2025. 9. 24
지 은 이 데이빗리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